



#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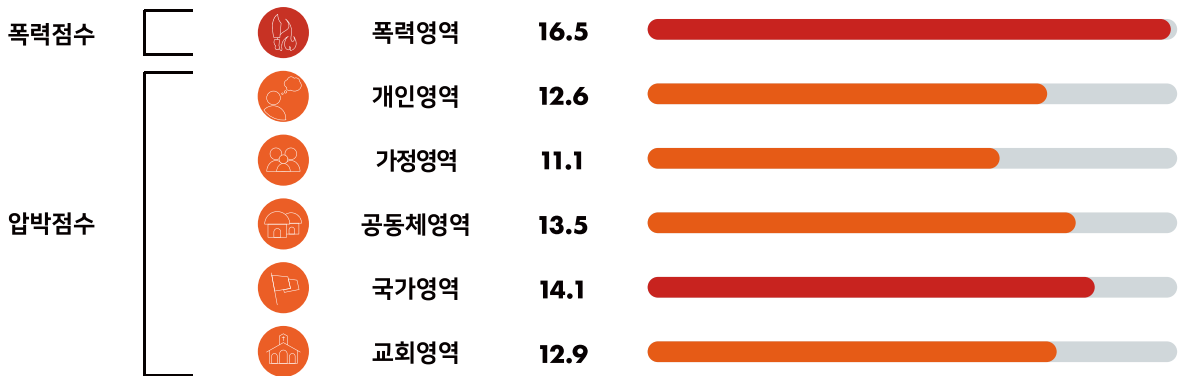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 미얀마 (MYANMAR)

기독교 박해지수  
**13**위



###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6x16.7=100)

### 중요한 발견

2025년은 미얀마가 점점 더 격렬해지는 분쟁의 5년차에 접어드는 해다. 2021년 2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후, 미얀마의 많은 지역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수 기독교인이다. 친, 카야 등 기독교가 우세한 주뿐만 아니라 카친, 카렌, 산 등 소수 기독교가 강한 주에서도 정부군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전통적인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잘 정립된 교회조차도 공격을 받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쫓겨나 난민 캠프에서 살거나 교회로 피신하거나 심지어 식량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밀림으로 피난을 떠났다. 내전이 시작된 이래로 미얀마에서는 약 150만 명의 시민이 국내실향민이 된 것으로 추산된다.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평화적인 저항 운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는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

2023년 10월 북부 산 주에서 세 개의 강력한 소수민족 무장 단체가 벌인 '작전 1027'이라는 이름의 공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전반적으로 군사 정권을 후퇴시키고 버마 심장부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다른 소수민족 무장 단체의 공세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미얀마 영토의 절반 가량을 점령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작전은 계속되고 있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불교, 무슬림 또는 부족의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개종을 배신으로 간주하여 추가적인 핍박을 받기도 한다. '불교도만'을 유지하려는 지역사회는 기독교인 가족에게 지역사회의 수자원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등 기독교인의 삶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미얀마의 시골 지역에 위치하거나 개종 전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전통적 교회 단체도 반대를 경험한다.

# 미얀마 (MYANMAR)

## 국가 정보

지도자 : 아웅 흘라잉 총리

인구 : 54,965,000 명

기독교인 수 : 4,760,000 명<sup>1</sup>

주요종교 : 불교

정부형태 : 군사 정권



##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4,760,000	8.7
불교	40,603,000	73.9
민족 종교	5,159,000	9.4
이슬람	2,123,000	3.9

출처<sup>2</sup>

1948년 미얀마가 독립한 후 몇 년 동안 다양한 민족 집단이 분리 독립을 시도하며 독립 국가를 형성하려 했다. 국가의 통합과 버마 민족의 지배를 유지하려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고, 이후 50년간 군부 통치가 이어졌다. 아웅산 수지 여사가 주도한 일련의 시위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압력이 높아졌고, 2015년 선거에서 수지 여사가 압승을 거두면서 정점에 달했다. 그녀는 2020년 선거 이후 군부에 의해 강제로 퇴진했고, 이후 미얀마는 다시 군부 통치로 돌아갔으며,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심각한 불안과 폭력,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 소수 민족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소수 민족(친, 카렌, 리수, 카친, 나가, 카야, 라후 등)에 속하며 버마인(바마족)이 다수를 차지하지 않고 소수 민족에 속한다.

<sup>1</sup> 정보출처: Zurlo G A and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y 2024

<sup>2</sup> 정보출처: Zurlo G A and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y 2024

쿠데타 이전에도 기독교인들의 삶은 힘들었다. 예를 들어 2015년 8월에 '인종 및 종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채택되었다. 이 법은 종교 개종, 종교 간 결혼, 인구 통제, 일부일처제를 규제하여 불교의 정체성과 다수 민족인 바마라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법은 마바타와 같은 민족주의 불교 단체에 의해 전국적으로 환영을 받았다. 이 법은 주로 라카인주의 소수 무슬림을 겨냥한 것이지만, 개종을 하려면 여러 당국에 신고하는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마바타는 여러 차례 금지되었지만 다른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급진적인 불교 단체들은 기독교인보다 무슬림을 더 많이 표적으로 삼아 대부분 무슬림인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2022년 3월, 미국 정부는 로힝야족에 대한 잔혹 행위를 집단학살로 규정했으며, 세계사법재판소(ICJ의 새 이름)는 미얀마에 대한 집단학살 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있음을 확인했다.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고 있다. 마바타와 피우 쓰티는 불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군부의 압박과 심지어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기독교인 살해 사건도 보고되고 있다. 유엔은 미얀마의 아편 생산량이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 이후 거의 두 배로 증가했으며, 수익성이 높은 조직 범죄와 무법 지대가 인신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USIP, 2022년 11월 9일). 무법 지대는 주로 기독교 소수 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미얀마의 외

딤 지역과 국경 지역에서 발견된다. 중국은 중국인이 주요 표적이 되기 때문에 무법 지대에 대한 급습과 같은 강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신교인은 전체 기독교인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미얀마 침례교회의 교인 수는 약 16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상당수는 카렌족, 카친족, 친족에 속한다. 가톨릭 신자의 수는 이보다 적지만 최대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교파 간 연합이 강하지 않으며, 논란이 되는 사안이나 (박해) 상황에 대해서는 반응이 통일되지 않는다.

##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WWL 2025 보고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이 겪은 어려움은 기독교인이 다수인 지역(예: 친주)과 기독교인이 소수인 지역 모두에서 분쟁이 고착화되었다는 점이다. 타트마도(무장 세력)는 기독교 마을과 교회 건물(때로는 난민 수용소나 난민 수용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기독교인을 살해한다. 친 주에서 잔학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북쪽의 카친 주, 남동쪽의 카인 주, 남동쪽의 카야 주, 서쪽의 사가잉 디비전이 다른 핫스팟입니다. 이곳에서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대부분 기독교인)이 IDP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수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왔으며 인도주의적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 특히 기독교인이 소수인 이웃 산 주, 특히 북부에서 전투가 격화되었다. 라오스와 태국 접경의 무법 지대는 조직 범죄가 성행하는 곳으로, 기독교인이 다수 거주하는 소수 민족 지역에도 있다.

## 누가 영향을 받는가?

### 해외 거주 기독교인 공동체들

이 범주는 WWL 점수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이들 기독교 공동체는 수십 년 동안 미얀마 군부인 타트마도(Tatmadaw)의 탄압과 폭력에 직면해 왔다. 많은 경우 군부와 야당의 투쟁을 지지하는 카친 독립군(KIA)과 같은 급진 반군 단체 간의 갈등에 휘말려 있다. 이러한 분쟁은 일반적으로 분리주의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강한 민족주의가 만연하고 '이방인'으로 여



겨지는 기독교인들이 공격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 기독교 개종자들

불교나 무슬림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당국, 가족, 지역사회로부터 극심한 인권 침해에 직면한다. 바마르족은 불교를 떠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개종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마을에서 추방당할 가능성이 높다. 마 바타(Ma Ba Tha), 퓨 소우 티(Pyu Saw Htee) 같은 급진적 불교 단체는 불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로힝야족

은 주로 무슬림 민족이지만, 군부의 폭력적인 조치로 인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야 했던 기독교 개종자들도 있다. 기독교인 로힝야족은 민족적, 종교적 이유로 박해에 직면해 있다.

###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많은 복음주의 교회와 오순절 교회는 특히 시골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위반에 직면해 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자료의 전도와 수입은 불법이었다. 최근에는 정부 정책이 다른 소수 종교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불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 종교적 민족주의 - 민족 - 종교적 적대감과 혼합된 불교

미얀마 인구의 60%는 버마인(바마르족)이다. 버마인이 된다는 것은 불교를 믿는다는 것과 동일시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방인으로 간주되어 국가와 국민 통합에 위협이 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심지어 마 바타 그룹과 같은 급진적인 불교도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 국가 전문가가 군사 정권이 마 바타 회원을 구청 관리자로 임명했다고 보고했다.

### 독재적 편집증

미얀마는 군부에 의해 통치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15년이나 2020년 선출된 정부 모두 편집증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21년 2월의 군사 쿠데타에서 알 수 있듯이 미얀마는 군부가 거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의회 의석의 4분의 1이 군인들을 위해 배정되어 있고 군대가 가장 중요한 정부 기관을 장악하고 있다. 또한 한 국가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버마 정부의 '통치권'(중국의 '천명'에 비견되는)과 불교 생태계를 조성, 유지, 확장하는 능력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버마인들이 전통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치한 적이 없는 지역에 불교를



확장하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수민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현 군부에게 매우 중요하다."

### 조직적 부패와 범죄

옥, 광석, 목재 등 미얀마에서 가장 귀중한 천연자원은 기독교 인구가 많은 주에서 많이 발견된다. 또한 미얀마는 아시아 최대 아편 생산지 중 하나인 '골든 트라이앵글'의 일부이다. 종종 군부와 반군 단체는 이러한 수익성 높은 사업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놓고 경쟁한다. 기독교인처럼 부정부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군 단체와 군대 모두로부터 폭력을 당할 위험이 있다. 산 주와 같은 소수민족 주와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접한 다른 주에서 생겨난 무법 지대는 내전이 조직 범죄에 어떻게 이득을 주는 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 여성

2021년 2월의 군사 쿠데타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미 상당한 세력을 확장한 군부는 성폭력 가해자로 알려진 젠더 기반 폭력의 가해자다. 많은 난민 여성과 청소년이 노예, 인신매매, 학대에 취약하다. 또한 로힝야족 기독교 여성들은 여성을 납치하여 무슬림 남성과 결혼하도록 강요하는 극단주의 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다. 주로 기독교인인 카친주의 여성들은 남성 후계자를 낳기 위해 중국으로 '신부'로 계속 인신매매되고 있다. 또한 개종자들은 가택 연금, 강제 결혼, 가정에서의 추방, 이혼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사회 공동체/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거부
- 강제이혼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 (가택 연금)
- 폭력 - 신체적 / 성적

### 남성

기독교인 남성은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마을이나 마을에서 쫓겨나가거나 강제 노동의 굴레에 갇힐 수 있다. 기독교인 남성은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신앙을 실천하기가 어렵다. 군대 내에서 신앙을 실천하거나 카친 독립군과 같은 민병대에 가입하라는 압력을 받을 때 특히 어렵다. 나따라 학교는 기독교가 다음 세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독교 어린이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 이곳에서 소년들은 불교 승려가 되도록 양육된다. 개종자들은 위협과 조롱, 신체적 구타를 당하기도 한다. 현재의 내전 상황에서 기독교인 남성, 특히 청년들은 자동적으로 야당의 일원이거나 정권에 반대하는 민병대의 일원으로 간주될 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징병제는 남성의 안전과 생존에 위협이 된다.

####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군대/군인 징집/양심에 반하는 복무
- 인신매매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13	81
2024	17	79
2023	14	80
2022	12	79
2021	18	74

전체 점수가 2점 상승한 것은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의 증가 (16.1점에서 16.5점으로 상승)와 교회 생활을 제외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소폭의 압력 증가로 인해 발생했다. 2025년 미얀마는 군사 정권과 저항 세력 간의 폭력이 계속 확대되면서 인권, 경제 안정, 인도주의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등 폭력적 분쟁이 더욱 심화되는 4년차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수민족인 기독교인들은 전국적으로 교회 파괴, 폭격, 불태우기 등 최악의 인권 침해에 직면해 있다. 집회 제한, 통행금지, 예배 장소에 대한 표적 공격으로 많은 기독교인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분쟁으로 인해 수많은 신자들이 국내 실향민 또는 난민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발전 중 하나는 강제 징병제가 도입되어 공포가 고조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떠나면서 기독교 공동체의 기반이 더욱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3년 11월 26일: 주군이 카야주의 로이 카우 대성당을 공습하여 건물에서 보호를 받으려는 국내 실향민들이 다른 곳으로 피난하게 했다.
- 2024년 1월 7일: 사가잉 사단의 카난 마을에 있는 한 교회가 공습의 표적이 되어 17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 중 11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한다.
- 2024년 4월 12일: 카친 주 모닌 마을에서 가톨릭 사제 폴 카위 세인 아웅이 아침 교회 예배를 드리던 중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된 기독교인	교회나 기독교 건물에 대한 공격 또는 폐쇄	구금된 기독교인	정부에 의해 투옥되거나 처벌받은 기독교인
2025	60	80	100*	10*
2024	34	32	18	1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종교 기반 폭력의 일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역학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해야 한다.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등근 숫자(10\*, 100\* 또는 1000\*)가 제공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기호 숫자 10,000\*, 100,000\*, 1,000,000\*도 마찬가지다.

개인 영역

미얀마의 현행법은 개인이 개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인종 및 종교 보호법”의 일부인 종교 개종법에 따르면 종교를 바꾸고자 하는 시민은 새로 설립된 종교 개종 등록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인터뷰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종교 공부를 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신청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되어 개종자는 신청을 철회하라는 지역 사회의 심한 압박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개종은 보통 비밀리에 이루어진다. 또한 개종자는 가족과 커뮤니티의 압력에 직면하고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한다.

가족 영역

미얀마 정부는 학비 없이 운영되는 기숙형 학교로 소수민족에게 매력적인 '국경 지역 민족 청소년 개발 훈련 학교'(또는 나따라)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들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불교를 소개하는 데 사용된다. 이들은 전쟁의 영향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 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군부는 소수민족 청년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도록 부추겨 소수민족 반군을 약화시키는 관행을 계속해왔으며, 이는 기독교 카친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동체 영역

미얀마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지역 사회의 압박이 심하다. 기독교인들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배제되어 빈곤, 괴롭힘, 범죄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가정교회에 모이는 기독교인들은 공동체와 정부 당국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이들은 공동체의 결정과 자원에서 배제된다. 건축 자재와 식수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면 기독교인들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내전이 심화되고 실향민과 실향민 수용소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독교인에 대한 의료 및 인도주의적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허용되지 않거나 최소한의 부분만 제공되고 있으며, 국제적 감시(때로는 접근조차 차단됨)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국가 전문가가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 이후 정부는 안면 인식, 전화 도청, 인터넷 검열,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과 같은 감시 기술을 사용하여 기독교인, 특히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특히 기독교인이 다수인 분쟁 지역에서 군부나 무장 단체의 감시,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다.”

## 국가 영역

2008년 헌법 361조는 다음과 같다: “연합은 대다수 시민이 고백하는 신앙으로서 불교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한다.” 또한 362조에서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정령숭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교의 특별한 지위”는 불교 급진주의자들에 의해 남용되어 왔다. 이전 정부는 다른 종교로의 개종을 통제하고 종교 간 결혼을 금지하며 산아제한을 도입하여 불교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 개종하려면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독교인은 일반적으로 불교인이 없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고용되며 승진에서 우회하는 경우가 많다.

내전이 심화되면서 기독교 구호 활동가들과 목회자들이 저항세력 지도자라는 비난을 받고 군대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 국가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독교인은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에 반하는 설교를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이 다른 불교계 사업가나 정치인들에 의해 매우 거짓된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매우 넓다.

## 교회 영역

반대 의견, 특히 소수 민족과 종교적 소수자의 상황에 대한 비판은 군부에 의해 가혹하게 다뤄진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종종 저항에 가담하거나 심지어 주도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한다. 군사 정권에 평화적으로 맞선 후 여러 차례 구금된 앤 로즈 누 타웅 수녀를 비롯해 용기 있는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UCA 뉴스, 2022년 1월 28일).

교회가 반대의 중심지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지역 사회, 당국, 특히 군대는 교회의 활동을 감시한다. 이러한 감시가 교회 건물과 교회 사역자 및 지도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살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불교 민족주의 운동인 마바타와 연계된 불교 승려들도 기독교 활동을 감시한다. 개종자의 경우, 발각되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압력은 훨씬 더 높다.





##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미얀마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2.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3.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미얀마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규칙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 어린이들은 불교 종교 교육을 받고 종교적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 의식과 축제에 참여하도록 강요받는다(CRC 제14조)
-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공동 자원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한다(ICESCR 2조)
- 적절한 생활 수준과 생활 조건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여 기독교인 가정과 상점이 공격 당하고 파괴된다 (ICESCR 11 조)
- 기독교 여성 개종자들은 불교 남성과 강제로 결혼하고 새로운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CEDAW 제16조 및 ICESCR 제10조)
- 카친족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이 성매매로 인신매매되고 있다(CRC 제34조 및 CEDAW 제6조)

## 미얀마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대부분 무슬림인 로힝야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는 헤이 그에서 논의 중이지만, 전체 법정 절차는 더디고 그 사이에도 박해는 계속되고 있다. 2024년 8월, 마웅도 인근에서 군과 무장 단체 간의 충돌로 50명이 넘는 로힝야족 민간인이 사망했다. 동시에, 타트마도는 종종 협박과 속임수를 통해 로힝야 남성과 소년(15세 이하)들을 강제로 군대에 징집하고 있다.

로힝야족이 아닌 다른 지역의 무슬림들도 정부나 군대에서 박해와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사람들은 때때로 무슬림에게 부동산을 팔기를 거부하고 이슬람 사원을 짓는 것을 금지하기도 한다. 힌두교도 역시 불교 우월주의로 인한 제한과 압박을 느끼지만 다른 소수 종교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 오픈도어의 미얀마 사역

오픈도어선교회는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미얀마에서 박해받는 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 제자 훈련 프로그램
- 목회 및 리더십 훈련
- 생계 지원
- 가족 및 결혼 강화
- 어린이 및 청소년 훈련
- 박해 대비
- 현존 사역

